



구약의 성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천막으로 된 성소와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진 성소가 구약 시대에 거룩한 예배의 중심이었다. 지상 성소는 바깥뜰과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다. 희생은 바깥뜰에서 드려졌다.

피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죄는 성소로 옮겨졌으며 성소는 그것으로 더럽혀졌다. 죄로 인해 바쳐진 희생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을 가리켰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선택되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 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히 9:1-7).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로부터 피를 취하여 언약궤 위와 앞에 뿌렸다. 이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그때 중재자로써 그는 죄를 자기에게 지우고 그 죄를 성소로 가지고 간다. 그 죄는 산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후 그 염소는 광야로 이끌려나가게 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백성들은 화해하게 되고 성소는 정결케 되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레 16:15, 16)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 20-22).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 20-22).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히 6:20)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488, 489.

사단은 성소 진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성소가 있음을 모른다. 성경은 하늘에 성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寫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

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 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각 시대의 대쟁투, 435.

뜰, 성소(holy place), 지성소(the most holy place)

성소(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양의 문(요 10:7-9)으라고 하셨다. 이 문은 죄인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을 상징한다.

성소는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다. 번제단은 제물인 양을 태우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상징한다. 물두멍은 침례를 통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한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2-4).

성소에는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었다. 등대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며, 분향단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절한 기도를 상징한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다.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이는 지성소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상징한다. 만나 항아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상징한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지도자, 교육을 상징한다. 선지자는 1844년 남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초기 문집, 254.

2,300주야와 성소의 정결

다니엘 8:14절의 2,300주야는 마지막 시대에 까지 이르는 명확한 기간을 나타낸다.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일년을 의미한다는 하루-일년의 원칙에 의하면(민 14:34; 겔 4:6). 2,300주야는 곧 2,300년이다

다니엘 9:24-27절에 기초하여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왕이 기원전 457년에 내린 세번째 조서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로부터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의 시간표로부터 70주(490년)가 정하여 졌다. 이 기간은 유대 민족을 위해 정해졌으며 기원후 34년에 끝났다. 나머지 1810년은 “정한 때 끝”인 서기 1844년까지 이른다. 단 8:14. 이 해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모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 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421, 480.

이때 예수께서는 지상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것과 같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마지막 일을 시작하셨다. 조사 심판도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단 7:9, 10, 13.

그리하여 땅에서 쉬고 있는 자들 중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격이 있으며 살아있는 자들 중 누가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 속죄 봉사의 끝이 바로 은혜의 시간의 끝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목사와 복음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2.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산상보훈, 77-7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